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각 도 연합회 신임 임원진 선거 성료

각 도 연합회의 신임 임원진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와 임원선거가 지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계속되어, 아래와 같이 각 도 연합회의 신임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신임 도 연합회 임원진은 중앙연합회 신임 임원진과 함께, 12만 한농연 회원과 400만 농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에 열과 성을 바쳐 일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각 도 연합회별 임원진 선거 결과이다.

■ 한농연 경기도연합회제 10대 임원 선거 결과(12. 27)

회장	임동식	(前) 경기도연합회 사업부회장
부회장	안정렬	(前) 안성시연합회 회장
	오윤환	(前) 용인시연합회 회장
	강우현	(前) 안산시연합회 회장
	신홍섭	(前) 양주군연합회 회장
감사	이호석	(前) 김포시연합회 회장
	한경희	(前) 광주시연합회 회장
	남영우	(前) 포천시연합회 회장

■ 한농연 충남도연합회 9대 임원 선거 결과(12. 30)

회장	지재돈	(前) 충남도연합회 사업부회장
부회장	김지식	(前) 금산군연합회 회장
	임재완	(前) 연기군연합회 회장
	박근춘	(前) 서천군연합회 부회장
	장석철	(前) 아산시연합회 회장
감사	성두현	(前) 충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
	김정순	(前) 계룡출장소회 회장

■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9대 임원 선거 결과(12. 30)

회장	임선택	(前) 전북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부회장	박영태	(前) 전북도연합회 사업부회장
	박일성	(前) 임실군연합회 회장
	길환생	(前) 원주군연합회 회장
	김진필	(前) 김제시연합회 회장
감사	두용철	(前) 전북도연합회 감사
	손원철	(前) 담원시연합회 부회장
	양병수	(前) 전주시연합회 북전주회 부회장

■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10대 임원 선거 결과(12. 27)

회장	이복호	(前) 전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부회장	정종관	(前) 전남도연합회 감사
	조희조	(前) 무안군연합회 회장
	김양곤	(前) 나주시연합회 회장
감사	최창기	(前) 전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
	이제국	(前) 강진군연합회 회장
	배상현	(前) 여수시연합회 회장
	신태선	(前) 장성군연합회 회장

■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11대 임원 선거 결과(12. 27)

회장	박노옥	(前) 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부회장	김용준	(前) 상주시연합회 회장
	최태림	(前) 의성군연합회 회장
	이수경	(前) 성주군연합회 회장
감사	김명섭	(前) 청송군연합회 회장
	이종호	(前) 고령군연합회 회장
	최희근	(前) 청도군연합회 회장
	권태걸	(前) 안동시연합회 회장

■ 한농연 경남도연합회 15대 임원 선거 결과(12. 26)

회장	김종출	(前) 거창군연합회 회장
부회장	박의규	(前) 고성군연합회 회장
	장성숙	(前) 창원시연합회 회장
	김영	(前) 의령군연합회 회장
감사	차수호	(前) 합천군연합회 회장
	이승호	(前) 하동군연합회 회장
	신주철	(前) 남해군연합회 회장

■ 한농연 제주도연합회 8대 임원 선거 결과(12. 27)

회장	문시병	(前) 제주시연합회 회장
부회장	황충호	(前) 북제주군연합회 회장
	고철희	(前) 남제주군연합회 회장
	정선태	(前) 제주도연합회 부회장
감사	부재일	(前) 서귀포시연합회 회장
	박관배	(前) 북제주군연합회 애월읍회 부회장
	오상익	(前) 남제주군연합회 부회장
	강상기	(前) 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



그 밖의 농업계 소식

농민단체도 여중생 추모물결에 동참, 농민단체 대표 기자회견 가져

11월 30일 서울 광화문 5천여명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 12월 14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 범국민 평화대행진'이 10만여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 12월 31일에도 서울 3만여명을 비롯해 부산 1만여명의 추모인파 속에서 2003년을 맞이하는 촛불을 밝혔다.

계속되고 있는 전국민적 촛불집회의 열기 속에서, 농민단체들도 지난 12월 12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이재덕 한농연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병국 농단협회장, 정현찬 전농의장 등 농단협 소속 농민단체장들이 대부분 참석하였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재판무효, 살인미군 처벌, 소파개정, 부시직접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정부에 대해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국에게 소파개정을 당당히 요구' 할 것과 '여야 정치권은 소파전면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03년을 '자주와 평화의 해'로 정하고, "촛불모임의 기조도 기존의 미군 무죄평결 항의시위에서 주권 회복과 반전·평화 시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도 매달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다짐하며, 국민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시위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촛불집회의 방향을 '반전과 평화'로 맞춰 가겠다는 것이다.



▲ 농민단체들도 지난 12월 12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여농 중앙연합회 제4대 선거직 임원 선출

한여농 중앙연합회(회장 김인호)는 지난 12월 10일 대의원총회를 한농연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제4대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재적 대의원 150명 중 131명이 참석하였다.

한여농은 이번 선거를 통해 김인호 3대 중앙회장이 연임되었으며, 부회장에는 허기옥 수석부회장과 강영오 정책부회장이 연임되었고 박희자 전 충북도회장이 새로 당선되었다. 한편, 한여농은 결원이 된 부회장 1인을 비롯해 감사 3인을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이날 총회에서 결정하였다. ■**한농연**